

자획(字彙) 부수 소고

김영경*

◁ 목 차 ▷

- I. 《字彙》 이전 자서의 《說文》 부수 개혁 개관
 - II. 《字彙》의 《說文》 부수 개혁 원칙 및 예시
 - 1. 《說文》 부수 연용
 - 2. 기존 부수의 삭제 및 병합
 - 3. 새로운 부수 창출
 - III. 《字彙》 부수 체계의 특징
 - 1. 부수 설정 상의 특징
 - 2. 부수 배열상의 특징
 - IV. 《字彙》 부수 체계의 문자학사 상의 의의
 - V. 결론
-

I. 《字彙》 이전 자서의 《說文》 부수 개혁 개관

중국의 자서 편찬 역사는 동한 시대 許慎이 편찬한 《說文》로부터 시작되었다. 《설문》 이전의 자서로는 《倉頡》 殘篇과 《急就篇》 등이 있는데, 모두 의미유형별로 배열되어 있다. 《설문》은 한자 배열 면에서 큰 돌파구를 이루어 「부수로 나누고 정리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分別部居, 不相雜廁)」 배열법칙을 세웠다. 이러한 원칙은 후대 字書 편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역대 자서 편찬의 본보기가 되었다.

《설문》이 자서 편찬의 본보기가 된 후부터 설문을 계승한 자서들이 잇달아 저술되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古今字詁》, 《字林》, 《字統》, 《古今文字》, 《玉篇》, 송대의《類篇》, 명대의 《字彙》과 《正字統》 등이 그것이다.¹⁾ 그 중 《玉篇》, 《類篇》,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학술연구교수/ling72@hanmail.net

1) 黃德寬·陳秉新《漢語文字學史》(中國, 安徽教育出版社, 1994年 11月), 51쪽.

《字彙》, 《正字統》만 소실되지 않고 남아 전하고 있다. 이 자서들은 글자체, 부수의 수량, 부수의 배열순서, 글자 수, 글자배열 차례 등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연원을 보면 모두 《설문》을 비조로 하고 그것을 조금 변형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문자의 변천에 따라 해서자형을 바탕으로 한 자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상술한 자서 중 《옥편》, 《유편》, 《자휘》, 《정자통》 등은 모두 해서자형에 기반을 두고 편찬한 자전이다. 특히 《옥편》은 최초의 해서 자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옥편》은 《설문》의 체례와 부수, 부수배열 등을 이어받았지만 《설문》의 부수, 특히 부수의 귀납을 조정하여 542개의 부수를 세웠다. 일부 한자와 後起字를 귀납하기 위해 ‘哭’, ‘畫’, ‘教’, ‘眉’, ‘白’(즉, ‘自’), ‘飲’, ‘后’, ‘弦’ 등의 11부를 삭제하고 ‘父’, ‘云’, ‘處’, ‘兆’, ‘磬’, ‘索’, ‘書’, ‘單’, ‘弋’, ‘丈’ 등과 같은 새로운 부수 13개를 세웠다.²⁾ 이 점을 보면 《옥편》이 《설문》의 부수와 부수배열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실제적인 문자 사용현황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옥편》은 여전히 《설문》의 부수체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소전체를 기준으로 부수를 나누는 등 아직 완전하게 해서의 자형으로 부수와 부수배열을 조정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획기적인 부수의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을 비조로 하는 자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설문》의 한계를 타파하는 일은 결국 명대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다.

《자휘》는 명 神宗 萬曆 四十三年(1615) 당시 국자감에 있던 梅膺祚가 편찬한 대형 자서이다. 갑골문부터 해서에까지 이르는 만장한 세월 속에서 한자는 끊임없이 변증법적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 변화의 큰 흐름은 자형의 간화(簡化)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휘》가 편찬되었던 명대는 한자의 자형이 가장 완비된 시대로 해서가 통용체로 널리 쓰이게 된 지도 한참이나 세월이 흐른 후였다. 하지만 해서에 의한 한자의 규범화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자휘》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편찬되었다. 《자휘》는 한자 수록 대원칙인 ‘通俗’의 원칙에 따라 당시 사람들의 한자 사용 현황에 맞추어 유행하던 통속자를 수록하되, 僻字, 怪字를 배제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가려 모아 그것을 규범화하기 위해 편찬되었고, 이로부터 자형, 字義, 글자 수 모든 면에서 한자 규범화의 표준이 마련되었다.³⁾ 《자휘》의 한자 규범화 노력 중에서 특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점이 바로 《설

2) 상동, 61쪽.

문》부수의 전통을 계승하되 그 당시에 통용되던 해서 자형의 특징을 충실하게 반영한 획기적인 부수체계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것이다.⁴⁾ 뿐만 아니라 《자획》의 부수 체계는 후세에 편찬된 자전의 모범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부수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획》의 부수 체계가 가지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오늘날 한자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수를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획》의 부수개혁 노력과 그 원칙, 구체적인 부수 개혁현황을 알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II. 《字彙》의 《說文》 부수 개혁 원칙 및 예시

《자획》은 해서 자형의 특징에 따라 《說文》의 540개 부수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 3) 徐金娟〈梅膺祚의《字彙》與明代的漢字規範〉:《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 2008年 第28卷 第6期, 1-2쪽. 매응조는 필획 부수 검사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자형의 규범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질적으로 ‘運筆’, ‘從古’, ‘遵時’, ‘古今通用’, ‘辨似’, ‘醒悟’ 등과 같은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辨字, 正字, 한자 규범화를 촉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王建庵〈梅膺祚和他的《字彙》〉:《江淮論壇》1980. 1, 116-117쪽 참조.
- 4) 《字彙》의 부수가 《說文》 부수의 체계와 달라야 했던 이유는 바로 당시 사용했던 한자와 자전의 한자 귀납 원칙이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해서의 단계에 이르면 한자는 이미 고문자의 시대에서 벗어나 자형은 물론 자의까지 고문자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萬’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글자의 갑골문 자형 𠂔(前3·30·5), 𠂔(乙1215), 금문 자형 𠂔(仲簋)를 보면 모두 전갈 같은 곤충의 형상을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萬’자가 원래는 곤충의 한 종류를 일컫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說文》에서는 이 글자를 “内”부에 귀속하였는데 이 글자가 숫자 ‘一萬’으로 가차됨에 따라 원래의 의미와 부수귀속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희미해져버렸다. 이에 따라 ‘萬’자를 찾기 위해서는 본래의 부수인 ‘内’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용자가 속출하게 되고 오히려 이 글자의 부수를 ‘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로 말미암아 ‘萬’자와 같이 문자사용의 실재와 문자 본연의 귀부 원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이론과 실재의 간극이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론과 실재의 간극이 이처럼 컸기 때문에 역대 자서들이 감히 선불리 부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하기를 꺼렸던 것이었다. 하지만 《字彙》는 이러한 어려움을 과감히 떨치고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철저히 해서의 자형에 근거하여 한자를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귀납하여 214개의 훌륭한 획기적이고 획기적인 부수체계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214개의 부수를 세웠다. 《자휘》가 세운 214개의 부수는 《자휘》뿐만 아니라, 그 후의 해서 자형을 기저로 한 자서가 《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서 자형을 귀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수 체계를 마련해주었다. 이는 설문의 출현으로 부수라는 개념이 나타난 이래, 소극적으로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부수개혁 움직임과는 달리 가장 완전하게 부수를 개혁한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휘》는 당시 유행하던 통속자를 수록하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를 규범화하는 게 목적이었던 만큼 자전 이용의 편의성과 통속성을 가장 중요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설문》 부수를 연용해 쓰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잘 쓰이지 않는 부수—空頭部首⁵⁾, 同形複體⁶⁾ 부수, 도태된 한자로 된 부수 등—를 삭제하여 부수의 수를 거의 반 이상 줄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강 하였으며, 새로이 한자의 부수귀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부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새로운 부수의 창출을 줄여 부수체계가 번잡해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새로이 부수를 재 귀납하는 과정에서는 해서의 자형을 기준으로 하여 자형이 유사하거나 공동의 부건⁷⁾을 가진 부수들을 한데 모아, 다시 의미적 연관을 가지는 지를 파악하여 부수를 상호 병합시켰다. 자형이 유사하거나 공동의 부건을 가진 부수끼리 모았을 때 어떤 부수를 선택하여 귀납할 지는 오로지 그 부수의 통속성, 대중성에 따랐다. 즉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의미 범위가 더 넓은 부수를 남겨 나머지 부수를 병합하도록 하였다. 부수를 더 쉽게 귀납하고 자전 이용에 편의를 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부수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휘의 부수 개혁에는 연용, 삭제, 병합, 창출이라는 대원칙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으로 해서 자형을 귀납할 수 있는 부수를 정비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인 부수 개혁 원칙과 그 구체적인 예를 알아보겠다.

5) 부수로 세워졌지만 소속된 한자가 없는 부수를 공동부수(空頭部首)라고 한다.

6) 회의에는 같은 字素를 두 개 이상 병렬, 중첩하여 글자를 이루는 同形複體 회의가 있다. 동형복체 부수는 바로 이들 동형복체 회의자(즉 重素字)로 세워진 부수를 말한다.

7) 部件: 한자를 이루는 造字單位를 말한다. 대부분의 한자는 일정 수의 필획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독립된 필획구조를 부건이라고 한다. 부건은 점이나 가로획, 세로획, 삐침, 파임 같은 기본적인 획보다는 크고 편방이라 불리는 결구 단위보다는 작다. 예를 들어 ‘側’자는 ‘亻’, ‘貝’, ‘丩’ 세 부건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부건은 때에 따라 독음과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說文》 부수 연용

《자획》은 《說文》의 부수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는 했지만 적잖은 《說文》 부수를 그대로 이어받아 연용하였다. 총 540부수 중에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부수는 208개로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說文》부터 《자획》까지 연용된 부수는 다른 부수를 귀납하는 바탕이 되어 삭제된 부수이든 합병된 부수이든, 새로 증보된 부수 이외는 모두 이 부수 유형에 근거하여 귀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부수에는 《說文》부터 《자획》에 이르기까지 자형 구조상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도 있고 심한 자형 변화가 일어난 예도 있다. 먼저 전자에 속하는 부수로는 ‘一’, ‘丨’, ‘二’, ‘人’, ‘厶’, ‘口’, ‘冂’, ‘彡’, ‘大’, ‘女’, ‘木’, ‘禾’, ‘立’, ‘糸’, ‘缶’, ‘艸’, ‘言’, ‘谷’, ‘長’, ‘馬’, ‘龜’, ‘龍’ 등이 있는데, 연용된 208개의 부수 중 대다수인 202개가 여기에 속하며, 자형 결구 상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예는 6개 정도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宀’ 부는 소전으로 宀로 썼는데, ‘宀’로 변하였고, 이 자형으로 ‘尤’, ‘厓’, ‘尫’ 등의 소속자를 통괄한다. ‘自’의 소전자형은 自이며, 지금은 ‘阜’의 자형으로 그 소속자 ‘防’, ‘陌’, ‘陷’ 등을 통괄한다. ‘宀’ 부는 현재 ‘宀’으로 쓰며, ‘冰’, ‘凝’, ‘況’ 등의 소속자를 이끈다. ‘宀’ 부수는 현재의 자형으로는 ‘冫’으로 쓰며, ‘弊’, ‘奔’, ‘弄’ 같은 소속자들을 이끈다. 그 외 ‘屮’(屮)과 ‘齊(齊)’도 《說文》당시의 소전자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히려 해서 자형에 적합화된 자형으로 부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설문》 이래로 연용된 부수의 일람표이다.

표1: 《說文》부터 연용된 208개 부수 일람표

연 번	설문해자부수	자획부수	귀납유형
1	一	一	연용
3	示	示	연용
6	玉	玉	연용
8	气	气	연용
9	士	士	연용
10	丨	丨	연용
11	屮	屮	연용
12	艸	艸	연용

15	小	小	연용
16	八	八	연용
17	采	采	연용
19	牛	牛	연용
22	口	口	연용
23	凵(kǎn)	凵(kǎn)	공 두 + 연용
26	走	走	연용
27	止	止	연용
28	址(=ㄸ)	ㄸ	연용
33	辵	辵	연용
34	彳	彳	연용
35	廴	廴	연용
37	行	行	연용
38	齒	齒	연용
39	牙	牙	연용
40	足	足	연용
41	疋	疋	연용
43	龠	龠	연용
46	舌	舌	연용
47	干	干	연용
54	十	十	연용
56	言	言	연용
58	音	音	연용
62	収(=升)	升	연용
70	革	革	연용
71	鬲	鬲	연용
73	爪	爪	연용
75	鬥	鬥	연용
76	又	又	연용
79	支	支	연용
81	聿	聿	연용
83	隶	隶	연용
85	臣	臣	연용
86	殳	殳	연용
89	寸	寸	연용
90	皮	皮	연용
92	支	支	연용
94	卜	卜	연용
95	用	用	연용

96	爻	爻	연용
99	目	目	연용
103	自	自	연용
104	白	白	연용
105	鼻	鼻	연용
108	羽	羽	연용
109	隹	隹	연용
114	羊	羊	연용
119	鳥	鳥	연용
123	幺	幺	연용
126	玄	玄	연용
131	步	步 = 歹	연용
134	骨	骨	연용
135	肉	肉	연용
137	刀	刀	연용
141	耒	耒	연용
142	角	角	연용
143	竹	竹	연용
147	工	工	연용
150	甘	甘	연용
151	日	日	연용
161	鼓	鼓	연용
163	豆	豆	연용
167	虍	虍	연용
170	皿	皿	연용
173	血	血	연용
174	丶	丶	연용
176	青	青	연용
179	鬯	鬯	연용
180	食	食	연용
184	入	入	연용
185	缶	缶	연용
186	矢	矢	연용
187	高	高	연용
188	冂	冂	연용
197	麥	麥	연용
198	父	父	연용
199	舛	舛	연용
201	韋	韋	연용

203	父	父	연용
206	木	木	연용
215	生	生	연용
226	口	口	연용
228	貝	貝	연용
229	邑	邑	연용
231	日	日	연용
237	月	月	연용
241	夕	夕	연용
247	傘=齊	傘=齊	연용
249	片	片	연용
250	鼎	鼎	연용
253	禾	禾	연용
255	黍	黍	연용
256	香	香	연용
257	米	米	연용
259	白	白	연용
263	麻	麻	연용
266	韭	韭	연용
267	瓜	瓜	연용
269	宀	宀	연용
272	穴	穴	연용
274	疒	疒	연용
275	冫	冫	연용
279	网	网	연용
280	西	西	연용
281	巾	巾	연용
286	辵	辵	연용
287	人	人	연용
289	匕	匕	연용
291	比	比	연용
298	身	身	연용
300	衣	衣	연용
302	老	老	연용
303	毛	毛	연용
305	尸	尸	연용
309	舟	舟	연용
310	方	方	연용
311	儿	儿	연용

318	見	見	연용
320	欠	欠	연용
324	頁	頁	연용
326	面	面	연용
328	首	首	연용
331	彡	彡	연용
333	文	文	연용
334	彡	彡	연용
338	口	口	연용
340	色	色	연용
343	勺	勺	연용
346	鬼	鬼	연용
348	厶	厶	연용
350	山	山	연용
353	广	广	연용
354	厂	厂	연용
357	石	石	연용
358	長	長	연용
361	而	而	연용
362	豕	豕	연용
364	彑	彑	연용
366	豸	豸	연용
370	馬	馬	연용
372	鹿	鹿	연용
377	犬	犬	연용
379	鼠	鼠	연용
382	火	火	연용
384	黑	黑	연용
388	赤	赤	연용
389	大	大	연용
394	允=尢	尢	연용
404	立	立	연용
408	心	心	연용
410	水	水	연용
415	川	巛	연용
420	谷	谷	연용
421	彡(=彡)	彡	연용
422	雨	雨	연용
424	魚	魚	연용

427	龍	龍	연용
428	飛	飛	연용
429	非	非	연용
433	至	至	연용
435	鹵	鹵	연용
437	戶	戶	연용
438	門	門	연용
439	耳	耳	연용
441	手	手	연용
443	女	女	연용
444	母	母	연용
446	ノ	ノ	연용
449	氏	氏	연용
451	戈	戈	연용
454	丁	丁	연용
458	匸	匸	연용
459	匸	匸	연용
462	瓦	瓦	연용
463	弓	弓	연용
467	糸	糸	연용
471	虫	虫	연용
474	風	風	연용
476	龜	龜	연용
477	黽	黽	연용
479	二	二	연용
480	土	土	연용
483	里	里	연용
484	田	田	연용
486	黃	黃	연용
488	力	力	연용
490	金	金	연용
493	几	几	연용
495	斤	斤	연용
496	斗	斗	연용
497	矛	矛	연용
498	車	車	연용
500	阜=阜	阜	연용
511	内	内	연용
514	乙	乙	연용

518	己	己	연용
521	辛	辛	연용
525	子	子	연용
532	辰	辰	연용
537	酉	酉	연용

2. 기존 부수의 삭제 및 병합

한자 변천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한자가 도태되고 새로 탄생하였다. 《설문》 부수에도 도태되고만 한자들이 여전히 부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속출했으며, 《자휘》는 소속자 통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수들을 전부 삭제하고 새로이 부수를 세워 소속자를 귀납하였다. 이러한 부수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艸’은 초목이 무성한 모습을 의미한다.⁸⁾ 《설문》 艸部는 ‘蓐’, ‘索’, ‘茈’, ‘苧’, ‘南’ 등 5개의 소속자가 있다. 그러나 훗날 ‘艸’자의 자형이 사라지고 ‘초목 무성한 모습’이라는 자의도 자형이 유사한 ‘市’이 표시하게 되었다.⁹⁾ 이에 따라 《자휘》는 ‘艸’부를 삭제하고 원래 이 부수에 속해 있던 한자들을 각기 새로운 부수로 배속하여, ‘蓐’는 ‘卍’부로, ‘索’은 ‘糸’부로, ‘茈’는 ‘丿’부로, ‘苧’는 ‘子’부로, ‘南’은 ‘十’부로 귀속시켰다.

‘卿’은 ‘卿’의 본자이다.¹⁰⁾ 후에 ‘卿’자가 이를 대신해 사용되고 ‘卿’은 서서히 도태되었다. 그러나 부수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자휘》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부수에서 삭제되었으며, 원래 ‘卿’부에 속해 있던 ‘卿’자도 ‘卍’부로 재배속되었다.

‘𨇗’자는 ‘양 언덕 사이’를 의미한다. 《徐箋》에 따르면 ‘𨇗’는 ‘隧’의 고문이다.¹¹⁾

8) 許慎 《說文·艸部》: 「艸木盛艸然. 象形, 八聲……」(廣州, 南方日報出版社, 2004), 214쪽.

9) 徐中舒 외 《漢語大字典》: 「《集韻·末韻》: 「市·芾, 艸木盛兒。」(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306쪽.

10) 徐中舒 외 《漢語大字典》: 「《說文·卿部》: 「卿, 事之制也。」章炳麟의 《文治》에 《說文》에 「卿, 事之制也. 從卍, 從口。」라고 하였으며, 卿으로 바뀌었다. 章이다. 《옥편》, 《唐韻》 모두 卿을 卿이라고 읽으니 틀림없이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고 하였음.(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131쪽.

11) 徐中舒 외 《漢語大字典》: 「《說文·𨇗部》: 「𨇗, 兩阜之間也. 從二阜.’(徐箋): 「𨇗蓋古隧字……以反正𨇗相合會意, 其中爲徑路也。」(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

한자가 형성자화되기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회의자가 형성자로 변화되거나 대체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소실되었다. 같은 원리로 ‘𨾏’자도 ‘隧’자에 의해 대체되어 더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소속자를 통괄할 수 있는 부수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휘》는 ‘𨾏’부를 삭제하고 그 수자인 ‘隧’를 ‘阜’부에 귀속시켰다.

《설문·𨾏부》에는 ‘𨾏’, ‘𨾏’, ‘𨾏’ 등 모두 3개의 소속자가 있다. 이 세 글자 모두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다. 《설문·𨾏부》에 따르면 ‘𨾏’은 ‘陔’의 고자이고, ‘𨾏’ ‘隘’의 고자이며, ‘𨾏’은 ‘燧(烽)’의 고자이다.¹²⁾ 고자는 점차 잊혀지고 ‘陔’, ‘隘’, ‘燧(烽)’ 같은 금자들이 널리 쓰이게 되자《자휘》가 이를 수록하고 새로이 이 글자들의 부수를 설정하여, ‘陔’와 ‘隘’는 ‘阜’부로, ‘燧(烽)’자는 ‘火’부로 귀속되었다.

《설문·𨾏부》의 풀이에 따르면 ‘𨾏’은 「隣道이다. 邑과 邑을 따른다. 𨾏.(隣道也. 從邑, 從邑, 𨾏.)」라고 했고,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에는 「隣道이다. 邑과 邑을 따르며, 회의이다.(隣道也. 從邑, 從邑, 會意.)」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𨾏’은 두 개의 ‘邑’으로 촌락과 촌락 사이 즉, ‘巷道’의 의미를 나타낸다. 현재 이 글자는 이미 사라졌고 이 부수에 속해있던 ‘鄉’과 ‘𨾏’자는 ‘邑’부수로 옮겨졌다.

이 같이 도태된 한자 외에도 소속자가 없는 공동부수나 동형복체로 이루어진 부수를 삭제하고, 그것을 같은 부건을 공유하고 있는 부수나 자형이 유사한 부수에 새로 병합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아래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1) 소속자가 없는 空頭部首 삭제

《說文》 540부수에는 부수로 세워졌지만 소속자가 하나도 없는, 이른바 空頭部首들이 많이 있다. 이는 그 부수를 이루는 한자의 字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비록

社, 1993년), 1720쪽.

12) 徐中舒 외 《漢語大字典》: 「《說文·𨾏部》: ‘𨾏, 阜突也. 從𨾏, 決省聲.’ 〈徐箋〉: ‘兩𨾏間空闕處, 故曰𨾏. 𨾏之言抉也, 蓋𨾏山通道之義.’ 《說文·𨾏部》: ‘𨾏, 陋也. 從𨾏, 𨾏聲. 𨾏, 籀文隘字, 隘, 籀文𨾏從自, 益.’ 《說文·𨾏部》: ‘𨾏, 塞上亭守燧火者. 從𨾏, 從火, 遂聲. 燧篆文聲.’ 〈段注〉: ‘此云塞上亭守燧火者, 謂邊塞之上守望燧之亭, 故其字從𨾏. 在陔隘之間也.’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각각 1729쪽, 1733쪽, 1733쪽 참조.

소속자가 없을지라도, 억지로 다른 부수에 귀납하지 않고 소속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부수로 세워두었다. 하지만 《자획》은 이러한 공두부수를 전부 삭제하고 각각 다른 부수로 귀납시켰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說文》 부수의 공두부수는 모두 36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두부수는 주로 자형 상 공동부건을 가진 더 간략한 부수, 즉 208개의 표준 부수에 병합되는 방법으로 다른 부수에 귀납 되었다. 예를 들면 ‘易’부는 ‘日’을 공동 부건으로 하므로 ‘日’부에 귀납 되었다. ‘率’부는 ‘玄’부를 공동 부건으로 하는 ‘玄’부로 귀납 되었으며, ‘四’부는 같은 원리로 ‘匚’부로 귀납되었고, ‘六’부는 ‘八’부로, ‘丙’부는 ‘一’부로, ‘壬’부는 ‘士’로, ‘戌’부는 ‘戈’로, ‘久’부는 ‘ノ’부로, ‘克’부는 ‘儿’부로 귀납 되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다. 일반적인 공두부수는 대부분 부수에서 삭제되어 다른 부수로 병합되었으나 凵(kǎn)만은 예외로 비슷한 자형의 凵(qù)를 흡수함은 물론 出부까지 아울러 연용되었다. 공두부수의 삭제 및 병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소속자가 없는 空頭部首 삭제 및 병합 일람표

연번	설문해자부수	자획부수	귀납유형
4	三	一	공두+동형복체
23	凵(kǎn)	凵(kǎn)	공두+연용
171	凵(qù)	凵(kǎn)	공두+유사자형
204	久	ノ	공두+공동부건
209	才	手	공두+공동부건
216	毛	ノ	공두+공동부건
217	叕	ノ	공두+공동부건
251	克	儿	공두+공동부건
252	彖	彑	공두+공동부건
265	耑	而	공두+공동부건
327	丐	一	공두+공동부건
360	冂	冂	공두+공동부건
367	𠂇	火(灬)	공두+공동부건
368	易	日	공두+공동부건
376	萑	艸	공두+공동부건
380	能	肉	공두+공동부건
413	彡	彡	공두+공동부건
426	燕	火(灬)	공두+공동부건

470	率	玄	공두+공동부건
475	它	宀	공두+공동부건
491	𠂔	干	공두+공동부건
503	四	口	공두+공동부건
507	五	二	공두+공동부건
508	六	入	공두+공동부건
509	七	一	공두+공동부건
513	甲	田	공두+공동부건
515	丙	一	공두+공동부건
516	丁	一	공두+공동부건
520	庚	广	공두+공동부건
523	壬	士	공두+공동부건
524	癸	廾	공두+공동부건
530	寅	宀	공두+공동부건
531	卯	口	공두+공동부건
535	未	木	공두+공동부건
539	戌	戈	공두+공동부건
540	亥	宀	공두+신조부수

2) 同形復體 부수의 병합

《說文》에는 같은 자소가 결합된 한자로 부수를 세운 예가 있다. 물론 동일자소의 합체자를 모두 부수로 세운 것은 아니고, 반드시 소속자가 있어야만 부수로 인정하였다. 이렇듯 동형복체 합체자로 이루어진 부수는 ‘三’, ‘從’, ‘衆’, ‘𠂔’, ‘𠂔’, ‘𠂔’, ‘𠂔’, ‘品’, ‘垚’, ‘多’, ‘炎’, ‘珏’, ‘𠂔’, ‘晶’, ‘𠂔’, ‘竝’, ‘蠱’, ‘𠂔’, ‘𠂔’, ‘蟲’, ‘𠂔’, ‘麤’ 등 47개이다. 이러한 한자는 같은 자소를 중첩하거나 병렬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미 면에서 기본 자소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병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자휘》는 이러한 동형복체의 합체자로 된 부수를 그 기본 자소가 속한 부수로 새로 귀납 하였다. 예를 들어, ‘三’은 이 글자를 이루는 기본 자소인 ‘一’로 귀납 되었고, 같은 원리로 ‘衆’은 ‘人’부에, ‘晶’은 ‘日’부에, ‘多’는 ‘夕’부에, ‘炎’은 ‘火’부에, ‘珏’은 ‘玉’부로 합병 및 귀속 되었다. 동형복체 부수의 병합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同形復體의 부수의 삭제 및 병합 일람표

연번	설문해자부수	자휘부수	귀납유형
4	三	一	공두+동형복체
7	珏	玉	동형복체
14	艸	艸	동형복체
24	口	口	동형복체
42	品	口	동형복체
45	咍	口	동형복체
55	卅	十	동형복체
57	諳	言	동형복체
63	乂	又	동형복체
97	爻	爻	동형복체
100	眈	目	동형복체
115	羴	羊	동형복체
117	隹	隹	동형복체
118	隹	隹	동형복체
124	纛	幺	동형복체
148	工	工	동형복체
208	林	木	동형복체
210	又	又	동형복체
230	邑	邑	동형복체
236	晶	日	동형복체
242	多	夕	동형복체
254	禾	禾	동형복체
290	从	人	동형복체
294	从	人	동형복체
304	毳	毛	동형복체
319	覷	見	동형복체
351	屾	山	동형복체
373	麤	鹿	동형복체
378	犬	犬	동형복체
383	炎	火	동형복체
386	焱	火	동형복체
405	竝	立	동형복체
409	忝	心	동형복체
411	水	水	동형복체
425	魚	魚	동형복체
464	弓	弓	동형복체
469	絲	糸	동형복체

472	蝨	虫	동형복체
473	蟲	虫	동형복체
481	垚	土	동형복체
485	畺	田	동형복체
489	劦	力	동형복체
501	皃	阜	동형복체
502	厶	厶	동형복체
505	叒	又	동형복체
522	辨	辛	동형복체
527	孛	子	동형복체

3) 자형 상 共同部件이 있는 부수와 의 병합

예변과 해서화를 거친 한자는 이미 조자 당시의 규율에 들어맞지 못할 정도로 자형 상 큰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해서의 자형과 그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자형에 의해 규정된 부수가 서로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자 규율에 맞지도 않는 한자를 억지로 본래 속했던 부수로 귀납 하는 것은 부수와 한자 귀납 면에서 불편만 가져올 뿐이었다. 그러므로 《자취》는 해서 자형을 표준으로 자형 상 공통 자소가 존재하는 한자들을 같은 부수로 묶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우선 《설문》부터 연용된 208개의 부수와 나머지 부수의 자형을 비교하여 자형 상 공동부건이 있는 부수끼리 한데 묶어 208개의 표준부수에 속하는 부수가 다른 부수를 병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日’부는 ‘旦’과 ‘明’부를 병합하였고, ‘木’부가 ‘束’와 ‘束’, ‘桀’부를 병합하였으며, ‘水’부가 ‘永’, ‘泉’, ‘灇’를 병합하였으며, ‘艸’부에 ‘苟’, ‘美’, ‘萑’, ‘華’, ‘蓐’ 등이 병합되었다. 이 ‘日’, ‘木’, ‘水’, ‘艸’ 등의 부수는 이들에게 병합된 부수들과 자의 상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병합된 부수와 이들을 통괄하는 부수 간에는 공동부건이 존재한다는 이유 말고도 자의 면에서도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병합과 귀납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 보겠다.

‘日’은 《說文·日部》의 풀이에 따르면 태양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자로 그 본의가 ‘해’이다.¹³⁾ 갑골문(☉乙3400, ☉京都2326)이나 금문(☉服尊)의 자형을 보

13) 許慎《說文·日部》:「實也。太陽之精不虧。從口,一。象形。凡日之屬皆從日。」(廣州, 南方日報出版社, 2004), 231쪽.

면 빛나는 태양과 가운데 흑점을 형상화하였으며 그 의미도 ‘해’를 의미한다. 한편 《說文》에 따르면 ‘旦’은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려 ‘明’이라는 의미를 뜻한다.¹⁴⁾ 갑골문(𠄎 佚468)이나 금문(𠄎 頌鼎)의 자형을 통해보아도 이 글자의 본의가 ‘지평선 위로 해가 떠 밝아오는 시각, 즉 이른 아침’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明’은 원래 ‘𠄎’과 ‘月’로 구성되어 ‘𠄎’으로 썼다.¹⁵⁾ 갑골문의 자형을 보면 𠄎(前4·10·4)으로 창(𠄎)에 달이 비친 모습으로 ‘밝음’을 뜻하였다. 그러나 자형의 변천과정에서 애초에 ‘𠄎’이었던 부분이 점차 ‘日’로 대체되어 해와 달로 밝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해서 단계에서는 ‘明’가 보편적인 자형으로 굳어졌다. 이처럼 해서 단계에 이르러 ‘旦’과 ‘𠄎’은 모두 ‘日’이라는 공동부건을 가지며, 그 의미도 모두 ‘日’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해’, ‘밝음’ 등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日’부에 귀속되었다.

반면에 전통적인 부수가 그 소속자와 자의 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과 달리 공통 부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형상의 유사성에만 주목하여 자의상의 연관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귀납의 편리성을 위하여 부수를 통합한 경우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一’部에 속하는 ‘不’과 ‘丨’부에 속하는 ‘丩’, ‘丩’부에 속하는 ‘之’, ‘儿’부에 속하는 ‘寃’, ‘丩’에 속하는 ‘亦’, ‘八’부에 속하는 ‘共’, ‘士’부에 속하는 ‘壹’, ‘彡’부에 속하는 ‘巢’, ‘无’부에 속하는 ‘死’자 등은 모두 그것이 속한 부수와 자의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귀납 유형은 부수를 기호로 인식하여 부수와 자의의 유기적인 관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부수체계의 개혁과 재정립에 상당히 고무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부건에 의해 병합된 부수의 예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4: 자형 상 共同部件이 있는 부수와의 병합 일람표

연번	설문해자부수	자획부수	귀납유형
2	上	一	공동부건
13	蓐	艸	공동부건

14) 許慎 《說文·旦部》: 「明也. 從日見一上. 一, 地也. 凡旦之屬皆從旦.」(廣州, 南方日報出版社, 2004), 235쪽.
 15) 許慎 《說文·明部》: 「照也. 從月從𠄎. 凡明之屬皆從明.」(廣州, 南方日報出版社, 2004), 238-239쪽.

18	半	十	공동부건
20	犛	牛	공동부건
21	告	口	공동부건
25	哭	口	공동부건
29	步	止	공동부건
30	此	止	공동부건
31	正	止	공동부건
32	是	日	공동부건
36	延	廴	공동부건
44	冊	冂	공동부건
49	只	口	공동부건
50	囟	口	공동부건
51	句	口	공동부건
52	乚	丨	공동부건
53	古	口	공동부건
59	辛	立	공동부건
60	辛	丨	공동부건
61	業	艸	유사+공동부건
64	共	八	공동부건
65	異	田	공동부건
66	昇	臼	유사+공동부건
68	農	日	유사+공동부건
69	爨	火	공동부건
72	灑	弓	공동부건
74	玨	丨	공동부건
77	丩	ノ	공동부건
78	史	口	공동부건
82	畫	田	공동부건
84	馭	臣	공동부건
87	殺	殳	공동부건
91	甍	瓦	공동부건
93	教	支	공동부건
98	旻	目	공동부건
101	眉	目	공동부건
102	盾	目	공동부건
106	頤	白	공동부건
107	習	羽	공동부건
110	奮	大	공동부건
111	萑	艸	유사+공동부건

113	苜	目	유사+공동부건
116	瞿	目	공동부건
120	烏	火(灬)	공동부건
121	華	十	공동부건
122	蕓	冂	공동부건
125	夷	ム	공동부건
127	予	亅	공동부건
128	放	支	공동부건
129	受	又	공동부건
130	奴	夕=歹	공동부건
132	死	夕=歹	공동부건
133	冎	冂	공동부건
136	筋	竹	공동부건
138	刃	刀	공동부건
139	刖	刀	공동부건
140	彡	丨	공동부건
144	箕	竹	공동부건
145	丌	一	공동부건
146	左	工	공동부건
149	巫	工	공동부건
152	乃	ノ	공동부건
153	丂	一	공동부건
154	可	口	공동부건
155	兮	八	공동부건
156	号	口	공동부건
157	亏	二	공동부건
158	旨	日	공동부건
159	喜	口	공동부건
160	亓	土	공동부건
162	豈	豆	공동부건
164	豊	豆	공동부건
165	豊	豆	공동부건
166	虍	豆	공동부건
168	虎	虍	공동부건
169	虬	虍	동형+공동부건
172	去	ム	유사+공동부건
175	丹	丶	공동부건
177	井	二	공동부건
178	皀	白	공동부건

181	人	人	공동부건
182	會	曰	공동부건
183	倉	人	공동부건
189	亭	高	공동부건
193	畝(=富)	田	공동부건
195	嗇	口	공동부건
196	來	人	공동부건
200	廛(=舜)	舛	공동부건
202	弟	弓	공동부건
205	桀	木	공동부건
207	東	木	공동부건
211	之	ノ	공동부건
212	巾	巾	공동부건
213	出	凵	공동부건
218	萼	人	공동부건
219	華	艸	공동부건
221	稽	禾	유사+공동부건
222	巢	巛	공동부건
223	柰	木	공동부건
224	束	木	공동부건
225	橐	木	공동부건
227	員	口	공동부건
232	旦	日	공동부건
233	軌	人	공동부건
234	舫	方	공동부건
235	冥	冫	공동부건
238	有	月	공동부건
239	明	日	공동부건
240	囧	口	공동부건
245	棟	木	공동부건
246	鹵	卜	공동부건
248	束	木	공동부건
258	穀	米	공동부건
260	凶	凵	공동부건
262	觥	木	유사+공동부건
264	尗	小	공동부건
268	瓠	瓜	공동부건
270	宮	宀	공동부건
271	呂	口	공동부건

273	癩	灬	공동부건
276	冂	冂	공동부건
277	冂	冂	공동부건
278	罔	入	공동부건
282	市	巾	공동부건
283	帛	巾	공동부건
285	術	巾	공동부건
293	丘	一	공동부건
295	壬	土	공동부건
296	重	里	공동부건
297	臥	臣	공동부건
299	肩	ノ	공동부건
301	裘	衣	공동부건
306	尺	尸	공동부건
307	尾	尸	공동부건
308	履	尸	공동부건
312	兄	儿	공동부건
313	先	儿	공동부건
314	皃	白	공동부건
315	𠂔	儿	공동부건
316	先	儿	공동부건
317	秃	禾	공동부건
321	歛	欠	공동부건
322	次	水	공동부건
325	百	自	공동부건
329	𠂔	目	공동부건
330	須	頁	공동부건
332	𠂔	彡	공동부건
335	后	口	공동부건
336	司	口	공동부건
337	卮	己	공동부건
339	印	卩	공동부건
341	卯	卩	공동부건
342	辟	辛	공동부건
344	包	勹	공동부건
345	苟	艸	공동부건
347	由	田	공동부건
349	嵬	山	공동부건
352	𡵓	山	공동부건

355	丸	丿	공동부건
356	危	厶	공동부건
359	勿	勹	공동부건
363	帛	彡	공동부건
365	豚	豕	공동부건
369	象	豕	공동부건
371	廌	广	공동부건
374	毘	比	공동부건
375	兕	儿	공동부건
381	熊	火(灬)	공동부건
385	囟	口	공동부건
387	炙	火	공동부건
391	矢	大	공동부건
392	夭	大	공동부건
395	壺	士	공동부건
396	壹	士	공동부건
397	幸(=幸)	幸	공동부건
398	奢	大	공동부건
400	夊	大	공동부건
401	夊	大	공동부건
403	夫	大	공동부건
406	囟	口	공동부건
407	息	心	공동부건
412	灑	水	공동부건
414	ㄹ	ㄹ	공동부건
416	泉	水	공동부건
417	灑	水	동형+공동부건
418	永	水	공동부건
419	辰	ノ	공동부건
423	雲	雨	공동부건
430	卂	十	공동부건
432	不	一	공동부건
436	鹽	鹵	공동부건
442	𠂇(=乖)	ノ	공동부건
445	民	氏	공동부건
450	氏	氏	공동부건
452	戍	戈	공동부건
453	我	戈	공동부건
455	琴	王=玉	공동부건

460	曲	曰	공동부건
461	畝	田	공동부건
465	弦	弓	공동부건
466	系	糸	공동부건
468	素	糸	공동부건
478	卵	口	공동부건
482	堇	土	공동부건
487	男	田	공동부건
492	勺	勺	공동부건
494	且	一	공동부건
499	自	ノ	공동부건
504	宁	宀	공동부건
506	亞	二	공동부건
510	九	ノ	공동부건
512	罍	口	공동부건
517	戊	戈	공동부건
519	巴	己	공동부건
526	了	丁	공동부건
528	去	厶	공동부건
529	丑	一	공동부건
534	午	十	공동부건
536	申	田	공동부건
538	酋	酉	공동부건

4) 유사자형의 부수에 의한 병합

한자가 예변과 해서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자형상의 혼란이 일어나 정확한 의미부를 알아보는 데에 큰 혼란이 일어났음은 이미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부수들은 소전 단계에서는 서로 명확한 자형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해서 단계에 와서는 자형상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약화하여 별개의 두 부수가 자형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자휘》는 이처럼 자형 상 큰 변별력을 보이지 않는 부수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중 널리 사용되는 부수로 나머지를 통솔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几’부가 ‘凡’부를 병합했고, ‘匕’부가 ‘匕’를, ‘母’가 ‘母’을, ‘玉’이 ‘王’을, ‘臼’가 ‘臼’와 ‘冪’를, ‘酉’가 ‘酉’를, ‘谷’이 ‘畝’을, ‘手’가 ‘才’, ‘禾’가 ‘禾’를, ‘木’부가 ‘朮’를, ‘大’가 ‘大’를 병합하였다.

《說文·几部》에 따르면, ‘几’는 「깃털이 짧은 새가 파닥거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다. 상형이다. 几를 따르는 글자는 모두 几부에 속한다(鳥之短羽, 飛几几也. 象形. 凡几之屬皆從几)」로 풀이되며, ‘踞几’를 뜻하는 ‘几’와는 자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습’은 《說文· 습部》에 의하면 「입 위의 도톰한 언덕이다. 입 구를 따른다. 윗부분은 그 무늬를 상형했다. 무릇 습을 따르는 글자는 모두 습부에 속한다.(口上阿也. 從口, 上象其理. 凡 습之屬皆從 습)」로 역시 ‘谷’의 자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처럼 《字彙》에는 대부분 자의 상 관련이 없는 부수끼리 자형 상의 유사성에만 의거해 하나의 부수로 병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예도 있다. 바로 ‘木’부가 ‘朮’을 병합하고 ‘大’가 ‘宀’을 병합한 예가 그러하다. 《說文· 朮部》에 따르면, ‘朮’은 「창이자 줄기의 껍질이다. 朮을 따르고, 八은 창이자의 줄기 껍질을 상형한 것(分象莖皮也. 從朮, 八象象之皮莖也)」으로 풀이되며, ‘蒼耳子 줄기 껍질’을 일컫는다. 근본적으로 식물에 속하므로 ‘木’부에 병합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宀’은 《說文· 宀部》에서 「籀文 대자이다. 고문을 고쳤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형상을 본떴다. 宀을 따르는 글자는 모두 宀부에 속한다(籀文大, 改古文. 亦象人形. 凡宀之屬皆從宀)」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이 글자와 ‘大’는 사실 상 한 글자이므로 한 부수에 병합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

표5: 유사자형의 부수에 의한 병합 일람표

연번	설문해자부수	자휘부수	귀납유형
5	王	玉	유사자형
48	畷(jue)	谷	유사자형
67	臼	臼	유사자형
80	聿	聿	유사자형
88	几	几	유사자형
112	屮	艸	유사자형
214	木	木	유사자형
220	禾	禾	유사자형
243	毋	毋	유사자형
244	弓	弓	유사자형
261	朮	木	유사자형
284	白	白	유사자형
288	匕	匕	유사자형

402	𠂇	大	유사자형
431	乙	乙	유사자형
434	𠂇(西=𠂇)	𠂇 ¹⁶⁾	유사자형
440	臣	臣	유사자형
447	厂	ノ	유사자형
448	丿	ノ	유사자형
456	乙	乙	유사자형
533	巳	己	유사자형

3. 새로운 부수 창출

이미 모두 주지하다시피 《자휘》는 역대 자서가 소전을 주제로 하는 《설문》 부수에 얽매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당시 성행하던 해서와 부합하는 부수체계를 정리해 내었다. 앞서 밝혔던 《설문》부터 연용된 부수 208개 외에도 6개의 새로운 부수를 세웠다. 어떤 한자들은 이미 造字 당시의 歸部 상황을 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한자 귀납과 검색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전에 기초를 둔 부수로는 도저히 귀납할 수 없는 後起字들은 더욱이 귀납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았다. 《자휘》는 이러한 귀납하기 어려운 한자와 후기자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의 편리한 검색을 위하여 ‘ㄱ’, ‘ㄷ’, ‘无’, ‘뉘’, ‘艮’, ‘父’라는 6개의 부수를 새로이 마련했다. 대부분의 새로운 부수는 일부 한자를 효과적으로 귀납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수로 그 부수들과 공통된 부건이 있는 소속자들을 통괄하도록 할 뿐, 이 부수가 소속자들의 조자 本義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부수에 의한 병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6: 신조 부수에 의한 병합 일람표

연번	설문해자부수	자휘부수	귀납유형
190	京	ㄱ	신조
191	盲	ㄱ	신조

16) 𠂇부는 西부를 병합하였으나, 자형은 오히려 西부의 𠂇부를 차용하고 있다. 심지어 《자휘》 내에서도 정문의 부수 표제자는 𠂇의 자형을 취하고 있으면서 검자나 𠂇부의 각 한자에는 𠂇자형을 사용하고 있어 혼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194	𠄎	𠄎	신조
323	无	无	신조
390	亦	𠄎	신조
393	交	𠄎	신조
399	尢	𠄎	신조
457	亡	𠄎	신조
540	亥	𠄎	공두+신조

새로운 부수는 위의 표와 같이 9개의 기존 부수를 병합하였고, 다른 부수에 속해 있던 한자도 이 부수로 귀속시켜 겹자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새로이 마련된 부수의 구체적인 한자 귀납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본래 《설문》에는 ‘𠄎’라는 한자가 없다. 이 글자는 遼대의 《龍龕手鑑》(997年)에 이미 출현하여 독음과 자형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대보다 늦게 나타난 글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휘》에서는 순수하게 ‘亡’, ‘尢’, ‘亥’, ‘亦’, ‘享’, ‘亭’, ‘亮’ 등 자형 속에 ‘𠄎’라는 부건을 가진 한자들을 귀납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수이다. 그러나 이 ‘𠄎’자는 소속자를 통괄하는 데에만 쓰이며 심지어 독립적으로 글자를 이루지도 못한다.¹⁷⁾

‘𠄎’자는 《설문》에서는 ‘冫’부에 속해 있고 소속자로는 ‘𠄎’자밖에 없다. 후에 《자휘》는 이 ‘冫’부를 ‘丷’부로 고쳐 귀납하고, ‘𠄎’으로 ‘式’, ‘弋’, ‘二’, ‘弑’ 등과 같이 ‘𠄎’의 부건을 가진 한자를 통괄하게 하였다. 《설문》에 따르면 ‘𠄎’의 본의는 ‘槩(말뚝)’이라고 하였는데, 이 글자는 사실 오뉘(화살 머리를 활시위에 끼우도록 에워 낸 부분)에 줄을 매어 쏘는 화살을 말한다. 그 본의가 화살이든 말뚝이든 위의 ‘𠄎’자 부건을 가진 한자들과는 자의 상 연관이 없으며 자형 상 공통적인 부건을 가졌을 뿐이다.

‘无’는 원래 ‘無’의 고자인데, ‘死’, ‘既’, ‘昏’, ‘就’ 등 자형 상 공통적으로 ‘无’의 부건을 가진 한자를 귀납하기 위해 세워진 것일 뿐, ‘无’자의 자의와 그 소속자들과는 아무런 자의 상 연관성이 없다.

17) 徐中舒 外《漢語大字典》:「《正字通·冫部》:‘𠄎’字, 六書不用爲字母, 本無音義, 猶人字在下之文作儿, 冫儿皆不獨用, 不煩訓釋, 非如口凵凵凵凵广之各有所指, 各具音義也.’(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117쪽.

‘冫’은 원래 《설문》에 실리지 않은 글자이다. 대신 ‘片’부가 설정되어 있는데, 고문자에서는 자형의 正反이 뒤바뀌는 필사법도 한 글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冫’과 ‘片’은 같은 글자이며 ‘判木’을 의미한다.¹⁸⁾ 《자휘》는 ‘牀’, ‘牂’, ‘將’ 등 ‘冫’부건을 가진 한자들을 귀납하기 위해 특별히 ‘冫’부를 신설했다.

‘良’은 원래 ‘匕’부에 속하는 한자이고, ‘한계’가 본의이다.¹⁹⁾ 《자휘》는 ‘良’의 자형을 빌어 ‘良’, ‘艱’ 등 ‘良’자의 부건을 가진 한자들을 귀납하기 위해 ‘良’부를 신설했다.

위와 같은 신설 부수의 출현은 《자휘》가 드디어 《설문》 부수 체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검색의 편리에 중점을 두고 필요할 때는 부수를 하나의 기호체계로 볼 수도 있는 새로운 부수체계를 완성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순수하게 귀납의 효율성을 위해 부수와 그 소속자 간의 자의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부수와는 달리 새로이 출현한 어휘를 기록하기 위해 세워진 신설 부수도 있다. ‘父’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父’는 《설문》에서는 ‘又’부에 속하며, ‘부친’을 의미한다.²⁰⁾ 훗날 각지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고 그중에는 방언과 속칭도 있다. 《자휘》에서는 이러한 신조어를 ‘爺’, ‘爹’, ‘翁’, ‘爺’, ‘翁’, ‘爺’ 등 6가지 정도 수록하고 있는데²¹⁾, 이러한 신조어들을 수록하기 위해 《옥편》의 방법을 모방하여 ‘父’부수를 신설하여 이러한 글자들을 귀납하였다.

18) 徐中舒 外《漢語大字典》：「孫海波의 《甲骨文篇》에서 《說文》에는 片은 있으나 冫은 없다. 《六書故》에서는 ‘당본에는 《冫部》가 있다.……고문에는 한 글자를 정반 두 필사법으로 쓸 수 있으므로 편과 冫은 사실 한 글자이다.’라고 하였음」(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993쪽.

19) 許慎《說文·匕部》：「良, 很也. 從匕目, 匕目. 猶目上匕, 不上下也. 《易》曰：‘良其限, 匕目爲眞也.」(廣州, 南方日報出版社, 2004年).

20) 徐中舒 外《漢語大字典》：「《說文·又部》：‘父, 矩也. 家長率教者. 從又舉杖.’ 곽말약은 《甲骨文字研究》에서 父는 도끼의 本字이며, 석기 시대에는 남자가 돌도끼를 들고 여러 일을 했으므로 부모 중 아버지의 의미까지 파생되었다고 했다」(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855쪽.

21) 徐中舒 外《漢語大字典》：「《集韻·禡韻》：‘吳人呼父曰爺.’, 《廣韻·麻韻》：‘爹, 羌人呼父也.’, 《智韻》：‘北方人呼父.’, 《正字通·父部》：‘翁, 舊注音同, 父也. 從父, 從同, 謂親之如父, 與淮南假母義同.……蓋非生母, 故謂之假, 猶之非生父, 故謂之翁.’, 《字彙·父部》：‘爺, 同爺.’, 《玉篇·父部》：‘爺, 俗爲父爺字.’」(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년), 855쪽.

‘父’부에는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글자, 이른바 해서화 단계까지 자형의 변화를 겪어 오면서 ‘父’ 부건을 가지게 된 古文들도 수록하고 있다. ‘悤’, ‘𠄎’, ‘𠄎’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悤’은 고문 ‘萬’자이고, ‘𠄎’은 고문 ‘𠄎’이며, ‘𠄎’은 고문 ‘於’자이다. 모두 ‘아버지’라는 부수의 의미와는 하등 관련이 없이 순수하게 자형의 유사성에만 의해 귀납된 예들이다. 이 역시 귀납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부수가 가져야 할 본연의 표의 기능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호로 보기도 하는 《자휘》 부수 체계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자휘》가 《설문해자》의 부수 체계를 개혁한 원칙과 구체적인 개혁 현황을 소개하였다. 그 원칙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說文》 부수 중 208개의 부수를 그대로 연용
- 둘째, 소속자가 없는 空頭部首 삭제하고 부수 귀속 조정
- 셋째, 同形復體의 부수를 병합하고 부수 귀속 조정
- 넷째, 자형 상 共同部件이 있는 부수와 병합
- 다섯째, 자형이 유사한 부수에 의해 병합
- 여섯째, 부수를 부호로 간주하는 새로운 부수 창출

Ⅲ. 《字彙》 부수 체계의 특징

앞 장에서는 《字彙》의 부수 개혁 노력과 구체적인 개혁 원칙에 대해서 서술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字彙》 부수가 기존의 《설문》 부수와는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字彙》가 편찬될 당시의 사회적·학문적 상황은 모두 실용적인 학문을 필요로 하였고, 한자를 규범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느끼던 시기였다.²²⁾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字彙》는 철저하게 실용성에 따라 수록할 한자를 선별하고 자형과 자의를 규범 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인 매응조는 무엇보다도 《字彙》가 가져야 할 자전으로서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했다. 이러한 생각은 부수의 설정, 부수의 배열원칙, 글자 간 배열원칙 모두에 여실히 반영

22) 徐金娟 《梅膺祚的〈字彙〉與明代的漢字規範》: 《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 2008년 6월 第28卷 第6期, 1-2쪽.

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字彙》 부수가 가지고 있는 부수 체계의 특징을 부수 설정, 부수 배열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부수 설정 상의 특징

1) 《字彙》는 해서체의 자형을 기초로 불필요한 부수를 정리하여 부수 체계를 간소하게 하였으며 검자의 편리성을 높였다.

《字彙》의 214개 부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에 통용되던 해서의 자형 구조에 근거하여《설문》의 540부수에서 불필요한 부수를 삭제하고, 비슷한 자형에 근거하여 병합하고, 필요 시 새로운 부수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부수만 있고 소속자가 없는 空頭部首, 동일한 자소를 중첩한 동형복체의 부수, 이미 도태된 한자로 세워진 부수 등을 삭제하고, 고문자 자형에 근거해 무리하게 원래의 부수에 귀속되어 있던 부수와 그 소속자의 귀납을 재조정하여 해서 자형에 기초하여 그 부수와 자형이 유사하거나 공동부건을 가진 부수로 새로이 병합하였다. 따라서 《字彙》의 부수는 《설문》의 부수보다 한자 자형의 변화발전 규칙, 즉 자형의 간략화라는 특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변과 해서화 이후 한자의 의미부(부수까지 포함됨)가 조자 당시의 자형과 달라짐에 따라 한자 자형에서 원래의 의미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지 못해 생기는 검자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2) 《字彙》는 때로는 부수를 부호로 간주하기도 한다.

《字彙》역시 부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역시 자의에 연관에 따른 부수 설정과 귀납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해서화 이후의 자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한자의 조자 본의와 부수 귀납의 근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자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해서 자형에 맞추어 자형의 유사성만으로 어느 한 부수에 귀납하는 경우도 많았다. 《字彙》부수의 이러한 특징은 그 범례 제11조에서 잘 나타난다.

편방 艸를 艸 부에 넣고, 月을 月부에 넣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蔑자가 艸를 따름에도 艸부에 넣고, 朝는 舟를 따르는 데 月부에 넣는 것은 그 글자들의 의미를 헤아리던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는 그 의미를 따진 것이 아니라 자형을 따져 그렇게 한 것이다.(偏旁艸入艸, 月入月, 無疑矣. 至蔑從艸也, 而附于艸; 朝從舟也, 而附於月. 揆之于義. 殊涉乖謬. 蓋論其形, 不論其義也)²³⁾

이는 매응조가 이미 한자 필획의 부호성을 인지하고, 실천을 통해 의식적으로 천백여 년을 이어왔으나 현실적인 문자사용 현황과 맞지 않는 자의의 연관성에 의한 부수 귀납, 즉 ‘以義歸部’의 속박을 벗어나 해서 자형에 맞도록 부수 귀납을 재편성해냈음을 말한다.

2. 부수 배열상의 특징

1) ‘필획배열법’에 의한 부수 배열

《字彙》는 철저하게 ‘數’의 개념에 입각하여 부수와 각 부수의 소속자를 배열하는 ‘筆劃排列法’을 확립했다. 《字彙》가 나오기 전 가장 두루 쓰이던 자서는 《篇海》였다. 이 책은 자음을 기준으로 부수를 배열하는 ‘音序排列法’을 채택하고 각 부수의 속자는 필획의 다소로 배열하고 있어 《설문》이나 《옥편》보다는 검색이 쉬웠지만 여전히 손쉽게 한자를 찾기에 역부족이었다. 매응조는 《편해》를 비롯한 당시 널리 사용되던 자서의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의 개념으로 부수를 배열하고, 소속자 또한 필획의 다소를 기준으로 수록하여 검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자휘》는 214개 부수의 획수를 확정하고 획수를 기준으로 1획부터 17획까지의 부수 그룹을 나누고 같은 획수를 가진 부수끼리 한데 묶었다.

2) 十二干支에 의한 부수배열

《자휘》는 또 같은 획수끼리 묶인 부수를 다시 십이간지에 의해 분류 병합하고,

23) 梅膺祚 《字彙》(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7쪽 참조.

각 부수에 속하는 한자의 수도 동시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모든 간지마다 부수가 20개에서 29개 정도 병합되고 글자 수도 고르고 체계적으로 배열되도록 하였다.²⁴⁾

- 子集 : 1劃 部首(6個 部首)와 2劃 部首(23個 部首) 즉, 29個 部首
- 丑集 : 3劃 部首는 總 31個 部首인데 이를 前後로 나누어 前 部首인 口, 冂, 土, 士, 夕, 夕, 夕, 大, 女 등 9個 部首
- 寅集 : 3劃 部首 中 前 部首를 제외한 後 22個 部首
- 卯集 : 4劃 部首는 總 34個의 部首가 있는데 이를 上, 中, 下로 구분하여 4劃 上인 11個 部首
- 辰集 : 4劃 部首 中 中인 13個 部首
- 巳集 : 4劃 部首 中 下인 10個 部首
- 午集 : 5劃 部首인 總 23個 部首
- 未集 : 6劃 部首는 總 29個의 部首가 있는데 이를 前後로 나누어 前 部首인 22個 部首
- 申集 : 6劃 部首 中 前 部首를 제외한 後 7個 部首
- 酉集 : 7劃 部首인 總 20個 部首
- 戌集 : 8劃 部首(9個 部首)와 9劃 部首(11個 部首) 즉 20個 部首
- 亥集 : 10劃 部首(8個 部首), 11劃 部首(6個 部首), 12劃 部首(4個 部首), 13劃 部首(4個 部首), 14劃 部首(2個 部首), 15劃 部首(1個 部首), 16劃 部首(2個 部首), 17劃 部首(1個 部首) 즉 28個 部首

3) 동일 획수의 부수 간 배열 방법

《자획》은 획수의 다소에 따라 214부수를 1획부터 17획까지 차례대로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획수의 부수는 그 배열법이 단순하지 않다. 동일한 획수의 부수는 다시 자형, 자의, 성모를 기준으로 치밀하게 배열되는데, 상세한 배열기준은 아래와 같다.²⁵⁾

24) 金河鍾 《部首 規範化에 관한 研究 - 《說文解字》 540 部首와 《字彙》 214部首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3, 35쪽 인용.

25) 상동. 46쪽 인용.

① 《字彙》 214部首 중 동일 劃數의 부수 간 排列順序는 1劃 部首의 排列順序에 따라 배열되고 있다.

② 동일한 類(여기에는 위의 설명처럼 字形, 字義, 동일 聲母로 연결되는 部類를 말한다.) 內의 첫 部首와 마지막 部首는 서로 다른 類와 연결하기 위하여 七音과 淸·濁을 신중히 고려하여 排列順序를 결정하고 있고, 동일한 類에서 이와 같은 첫 部首와 마지막 部首를 제외하고 중간 部首間 연결은 聲母 뿐만 아니라 韻母도 고려하고 있다. 즉 韻母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部首가 있으면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들 部首間 관계는 淸·濁이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물론 동일하거나 비슷한 字形 혹은 字義로 연결되는 각 類에 대해서는 이러한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아마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③ 各 類間 연결은 七音 순서, 즉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만일 七音 가운데 어떠한 音이 생략되면 그다음 音으로 연결한다.

④ 各 類間 연결 가운데 七音과 淸·濁의 排列順序는 七音+全淸 → 七音+次淸 → 七音+全濁 → 七音+不清不濁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즉 牙音+全淸 → 舌音+全淸 → ... → 牙音+次淸 → 舌音+次淸 → ... → 牙音+全濁 → 舌音+全濁 → ... → 牙音+不清不濁 → 舌音+不清不濁 → ... → 半齒音+不清不濁 → 牙音+全淸 → ...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만일 중간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하고, 위 순서에 따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그림 중 各 類間 연결은 牙音+全淸 → 齒音+全淸 → 喉音+全淸 → 脣音+全濁 → 半舌音+不清不濁의 순서와 같다. 예를 들면 8劃 部首 중 첫 번째 部首인 '金' 部首는 見母, 牙音, 全淸이므로 위 排列原則에 따르고 있다. 즉 '里' 部首는 半舌音+不清不濁이므로 이다음에는 '金' 部首, 즉 牙音+全淸이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IV. 《字彙》 부수 체계의 문자학사 상의 의의

《자휘》는 부수의 설정부터 한자의 수록, 글자의 해석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찬하였으므로 일세를 풍미할 수 있었다. 그 중 《자휘》의 부수체계는 수많은 후세 자전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자학사의 의의가 특히 크다. 그러나 필자가 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든 단상은 《자휘》만큼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저서도 드물다는 것이다. 그것이 저평가든 지

나치게 후한 평가이든 《자휘》의 가치, 특히 그 부수 체계가 가지는 문자학상의 가치와 의의는 그 본연의 모습대로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자휘》부수의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휘》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휘》 부수는 앞서 설명했던 필획의 수로 부수의 차례를 정하고, 이 방법을 부수의 배열뿐만 아니라 각 부수에 속하는 한자를 수록하는 순서에도 응용하는 필획배열법을 처음으로 발명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1936년 胡朴安 선생이 《中國文字學史·字彙與正字通》에서 《자휘》 부수의 특징과 우수성을 언급한 후부터 자리 잡게 되었다.²⁶⁾ 그 후로 《자휘》는 한편으로는 획기적인 214부수와 필획배열법의 효시로 숭앙을 받기도 하고, 《강희사전》과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빼앗기기도 하는 등 그 가치에 대한 자리매김이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자휘》가 가지고 있는 부수체계의 우수성으로 《자휘》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휘》를 필획배열법을 창시한 자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필획배열법의 효시’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자휘》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湖北大學의 蕭惠蘭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휘》 이전에 이미 명대 학자 都俞의 《類纂古文字考》가 이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類纂古文字考》는 명 신종 만력24년(1596년)에 편찬되어 《자휘》보다 19년 일찍 세상에 나왔다. 이 책은 《四庫存目書》에 속해 있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1997년 《四庫全書》 시드롬이 출간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蕭惠蘭 교수의 《〈字彙〉再評價》에 따르면 이 책은 체제상 정문과 부록이 일체를 이루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앞머리의 〈辨疑略指〉에서는 자형이 비슷하여 혼용되는 부수편방을 분별하고 소속 한자를 배열하고 있으며, 반절로 한자의 독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雜字部〉에서는 부수귀납이 어렵거나 찾기 어려운 한자를 1획부터 20획까지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정문은 314개의 부수를 5권에 나누어 수록했으며 매 권 앞에 수록한 부수 목록을 붙여 놓았다. 각 부수의 한자는 필획의 다소에 따라 적은 것에서 많은 것 순서로 배열했으며 4획 이상의 한자에는 제일 처음 나오는 한자 위에 획수를 표시하였다.²⁷⁾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이 《類纂古文字考》가 처음으로 필획배열법을

26) 蕭惠蘭 《〈字彙〉再評價》,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년 9월 29권 제5기, 112-113쪽 참조.

27) 위와 같음.

창시하였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획배열법을 창시한 것이 《자휘》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수체계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類纂古文字考》가 《자휘》에 앞서 획기적인 검사법을 발명한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수많은 자전 편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중국 자전 편찬사에 큰 공헌을 한 것은 《자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휘》 부수체계의 진정한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가.

첫 번째, 《자휘》는 그 이전의 자서들이 이룩하지 못했던 부수개혁의 경지를 초월하여 《설문해자》 부수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개혁의 핵심은 바로 부수를 간소화하여 한자를 효율적으로 귀납하고 검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설문》의 540부수를 214개의 부수로 간소화했다. 《자휘》의 새로운 부수체계가 기존의 《설문》 부수체계와 다른 점은 해서를 표준 자형으로 하여 당시의 해서 자형의 구조를 비교적 잘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설문》에 의해 부수 개념이 성립된 지 천여 년 만에 《설문》의 부수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문자사용 현황까지 제대로 반영한 혁신적인 부수체계가 성립되어 《설문》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점이 바로 《자휘》 부수가 문자학 및 사서편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이다.

두 번째, '필획배열법'을 확립하여 자서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허신은 《설문》을 통해서 최초로 부수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학문적으로 대단한 공적을 남겼다. 그리고 허신의 이러한 부수체계는 몇 대의 왕조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감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누려왔다. 《설문》의 부수체계가 그토록 오랜 세월 숭상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자를 귀납하고 배열하는 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례로 《자휘》가 《설문》의 부수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때에도 208개의 부수는 그대로 연용해 썼을 정도로 설문의 부수는 우수하고 합리적이다. 다만 부수와 부수 소속자들을 더 합리적으로 배열하고 귀납 및 검색의 편리를 도모하는 일은 역대 자서 편찬자들이 줄곧 고민해 오던 문제였다. 어떤 자서는 의미 유형별로 배열해보기도 했고, 자음별로 배열해보기도 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다 《類纂古文字考》에 이르러 필획배열법이 창시되었고, 《자휘》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부수와 소속자 모

두 필획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필획배열법’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시키고 후세의 자전 편찬에도 응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類纂古文字考》와 《자휘》 사이에도 적지 않은 자서들이 필획배열법을 도입했었지만, 《類纂古文字考》를 포함하여 모두 부수의 배열에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당시의 자서 편찬은 ‘오행설’의 영향으로 ‘金’부를 앞에 두는 등 부수의 배열이 효율적이지 못했다.²⁸⁾ 그러나 《자휘》는 부수와 소속자 모두를 필획의 다소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여 전인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필획배열법’을 확립한 공헌이 크다. 이러한 방법은 예번 후의 한자가 모두 필획화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검색이 쉽고 체계적이었으니 상당히 효과적인 부수배열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후세 자서 편찬의 모범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자휘》는 《설문》 부수의 ‘從義歸部’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소전에 근거해 성립된 《설문》 부수가 귀납할 수 없으리만큼 큰 변화를 겪은 해서 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전통적인 ‘從義歸部’의 원칙을 타파하고, 철저히 해서 자형과 그 구조에 입각하여 부수를 병합하고 소속 한자의 귀납을 재정비하였다. 이를 위해 부수의 의미부로서의 기능에만 집중하여 오히려 혼란만 야기했던 기존의 사서편찬 태도와 달리 부수를 ‘부호’로 간주하고 자형적인 면에서 그 부수가 가지는 대표성에 입각하여 소속 한자를 귀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한자가 점점 기호화되어 가는 한자의 변천 규율에도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해서를 근간으로 하는 후세의 사서들이 나아가야 할 비를 시사해주었다. 이에 따라 《자휘》 후에 편찬된 《正字通》, 《康熙字典》, 《中華大字典》, 《辭海》, 《辭源》 등은 모두 《자휘》의 부수체계를 채택하는 등 후세 사서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간체자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도 대형 사전들은 여전히 《자휘》의 부수체계를 그대로 연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약간씩 개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니, 《자휘》 부수의 가치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²⁹⁾

28) 주 21과 같음.

29) 劉彩霞〈字彙釋字體例對現代字典的影響〉:《陰山學刊》2007년 4월 제20권 제2기, 18쪽. 王建庵,〈梅膺祚和他的《字彙》〉:《江淮論壇》1980년 1기, 116쪽.

V. 결론

본 논문은 《자휘》의 부수 개혁 양상을 밝히고, 《자휘》 부수체계가 문자학 및 자서 편찬 역사상에서 가지는 의의를 부수 설정과 부수 배열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휘》는 고대문헌에서부터 사용되어오던 중요한 글자 중에 누락된 글자가 많은 점, 속자를 수록할 때 '同某'라고 주석만할 뿐 구체적인 자의를 표시하지 않았든지, 속자와 정자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오류를 범한 점, 기존의 자서에 기록된 주음이나 석의를 그대로 옮겨오는 바람에 틀린 것도 변별하지 못한 채 가져다 놓는 실수를 범하여 자형, 자음, 석의 모두에서 적잖은 설명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 부수 체계 외의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많고, 그 결과 《자휘》가 이룩해 낸 부수개혁의 공로까지 《강희자전》에 빼앗기는 등 저평가된 면이 많았다.³⁰⁾ 하지만 그전의 어떠한 자서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설문》 부수의 본격적인 개혁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신 부수체계의 정립은 오직 《자휘》만이 가지고 있는 문자학적, 사서학적 가치임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參考文獻】

- 許慎《說文解字》，南方日報出版社，2004. 4.
 梅膺祚《字彙》，上海辭書出版社，1991. 6.
 徐中舒 외《漢語大字典》，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1993. 6.
 黃德寬·陳秉新《漢語文字學史》，中國，安徽教育出版社，1994. 11.

30) 張涌泉〈論梅膺祚的《字彙》〉：中國語文 1999年 第6期，474~476쪽. 張涌泉의 〈《正字通》對慈禪的匡正及存在的問題〉：《中國語文》2005年 第4期에서 《正字通》의 《자휘》 오류 수정 노력과 성취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놓았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자휘》 부수가 가진 가치에 대한 저평가는 《자휘》 부수의 체계를 보급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강희자전》이 가진, 최초의 관편 자전이라는 권위 때문에 일어났다. 1980년에 杭州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4期에 실린 張旭光의 〈梅膺祚創立二一四个部首和《康熙字典》〉이라는 논문을 보면 《강희자전》이 214부수를 창립하여 후세 자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 것을 개탄하며 《자휘》 부수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휘》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徐金娟 〈梅膺祚的《字彙》與明代的漢字規範〉:《湖北廣播電視大學學報》第28卷,第6期,2008.6.
- 王建庵 〈梅膺祚和他的《字彙》〉:《江淮論壇》,1980.1기.
- 金河鍾 《部首 規範化에 관한 研究 - 《說文解字》 540 部首와 《字彙》 214部首를 통하여》 제주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3.
- 劉彩霞 〈字彙釋字體例對現代字典的影響〉:《陰山學刊》제20권 제2기, 2007.4.
- 張涌泉 〈論梅膺祚的《字彙》〉:中國語文 1999年 第6期.
- 張涌泉 〈《正字通》對慈禪的匡正及存在的問題〉:《中國語文》2005年 第4期.
- 張旭光 〈梅膺祚創立二一四个部首和《康熙字典》〉: 杭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0年 4期.
- 蕭惠蘭 〈《字彙》再評價〉: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9권 제5기, 2002. 9.

【中文提要】

中國編纂字書的歷史始自東漢許慎編纂的《說文解字》。《說文》以前的字書,《蒼頡》殘篇和《急就篇》均按照意義類別編排。《說文》在編排上大有突破,徹底運用了“分別部居,不相雜廁”,“建類一首,据形系聯”的編排原則。這些原則給后代字書的影響非常之大,成爲歷代編纂字書的楷模。自從《說文》成了字書編纂的典范之后,出現了許多祖述《說文》的字書。其中《玉篇》、《類篇》、《字彙》、《正字通》都還有善本流傳至今,這些字書盡管字体、部數、部次、字數、字次都有不同之處,但是觀察其淵源即可得知全部都是以《說文》爲宗,稍有改變而已。

隨着文字的演變,人們需要以楷書爲正文的字書,上述的字書當中《玉篇》、《類篇》、《字彙》、《正字通》等字書就是以楷書爲正文的。尤其是《玉篇》爲漢字文字學史上第一部楷書字典,《玉篇》依據《說文》的體列分部排列,與《說文》不同的地方在於《玉篇》分了542個部首,對《說文》的部次進行了重新調整,尤其是對《說文》的部首歸納也進行了調整。可是《玉篇》仍然拘泥於《說文》的部首系統,依旧按篆體分部,不能完全按照楷書的字体來重新調整部首和部次。於是,可以說祖述《說文》的字書真正突破《說文》的界限,一直到明代由《字彙》的編撰才能完全實現。《字彙》依據楷書字形的特点對《說文解字》的540部首作了重大的改編,並列了214個部首。

《字彙》所建立的214個部首,不僅《字彙》本身採用,而爲后代楷書字書建立

了一个能够突破《說文》的界限，适合歸納楷書字体的部首系統。這可以說是漢字分部的一次全面性的改革。經過對《字彙》和《說文解字》部首的統計和分析，能够得出以下六項原則。第一，保留《說文解字》的一些部首。第二，刪除有部无屬字的空頭部首。第三，合并同形变体的部首与其基本构件。第四，合并字形上有共同部件的部首。第五，合并字形相近的部首。第六，必要時新增一些部首。

《字彙》部首的特点与价值不在于超越以前的字書所未能達到的境地既繼承《說文解字》部首，又全面的改革它。改革的核心為簡化部首，有效地歸納所屬字，并給讀者提供檢索的便利。通過全面又革新的改革將540个說文部首簡化到214个。《字彙》部首最大的特点就是以楷体為基础較為完善的反映當時楷体的字形結構。《字彙》又确立‘筆畫排列法’，徹底以筆畫的多寡排列部首和其所屬字提高了字數使用效用，而此法成爲后世字書編纂的楷模。《字彙》既收容說文部首的‘從義歸部’原則，又打破其原則徹底立脚于楷書字形結構合并部首、調整部首歸納，對字形變化大得不能以說文部首歸納的漢字進行了合并工作。這別于其他執着于部首之意部供能反而引起字形歸并混亂的字書，將部首当做符号，只關注字形結構上其部首所具有的代表性而歸納所屬漢字，而這觀點正符合于日益符号化的漢字演變規律，于是《字彙》的部首体系可以為后世字書繼承，享用丰富的生命力。

【主題語】

部首改革，筆畫排列法，部首刪除及合并，沿用說文部首，部首歸納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